

〈일반논문〉

17세기 율곡학파 내 성리설의 변화*

나 중 현 **

〈목차〉

- I. 머리말
- II. 율곡학파 학술 전통의 성립과 이이의 성리설
- III. 김창협 의 理의 주재적 역할 인정
- IV. 권상하의 氣의 작용 강화
- V. 맺음말

[국문초록]

전대로부터의 유산을 기반으로 17세기 율곡학파는 학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율곡 이이의 저서 간행 작업을 통해 그의 성리설을 하나의 학술 전통으로 확립시켰고 주자성리학의 정통으로 인정받고자 하였다. 퇴계학파와의 대립 속에서 이이 이론의 정당성 문제가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비화함에 따라, 율곡학파에서는 이이의 이론이 주희로부터 내려오는 성리학의 정통을 이었으며 어떠한 문제점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7세기 율곡학파의 대표적 인물인 송시열은 이이의 이론 구조 속에서 理의 역할에 대해 해명하여 학파의 이론적 과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제II장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BK교수

전통의 공고화는 역설적으로 전통의 해석을 둘러싼 학술적 분기를 가져왔다. 율곡학파의 이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은 다양한 학술적 모색으로 이어져 학파의 학술적 분기를 가속화하였다. 김창협은 理의 주도적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율곡학파의 이론적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그의 견해는 학파 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김창협과 달리, 권상하는 현실에서 氣의 발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율곡학파의 입장을 더욱 강하게 적용하여, 현실의 모든 국면에 氣質이 영향을 준다는 전제에 따라 학파의 이론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었다. 이는 일견 학술 전통의 墨守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 그는 이이나 송시열보다 氣의 작용을 더욱 철저히 적용하여 학술 전통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 주제어

율곡학파, 성리설, 이이, 송시열, 김창협, 권상하

I. 머리말

조선 후기의 여러 학파들은 성리학의 발전을 이끌고 붕당의 형성에 학술적·인적 기반을 제공하여 사상적·정치적으로 많은 조명을 받았다.¹⁾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학파가 바로 율곡학파이다. 율곡학파는 조선 후기 양대 학파 중 하나로서 정치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16세기 후반 형성된 서인 계열의 주축을 이루었으며 17세기 老少分岐 이후에는 노론계의 학술적·인적 기반을 제공하였다.²⁾

1) 정재훈, 『조선시대의 학파와 사상』, 신구문화사, 2008, 5쪽.

퇴계학과나 남명학과, 화담학과 등 다른 학파들이 역사적으로 그 세력이 점차 약화되었던 것에 비하여, 율곡학과는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점차 강화해 나아갔다고 평가된다.³⁾ 이러한 점을 볼 때 율곡학과에 대한 연구는 곧 조선 후기 사상과 정치를 관통하는 주제라 할 수 있다. 율곡학파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파악하는 작업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과제는 곧 율곡학파를 이루는 학술 전통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성립하였고 또 학파의 분기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일 것이다.

율곡학파가 단일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학파로서의 모습을 확고히 하는 시기는 17세기 이후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지만,⁴⁾ 학파 결집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학술 이론과 학술 집단은 이미 16세기 사단칠정논쟁 단계에서 확보되었다.⁵⁾ 사단칠정논쟁을 통해 栗谷 李珥의 이론이 정립되었으며, 이이와 교유 및 사승관계를 맺는 집단이 형성되었던 것이다.⁶⁾ 이러한 기반은 이후 율곡학파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이로부터 내려오는 계보를 중심으로 한 집단이 17세기 퇴계학파(남인)와의 대립 속에서 이이의 학설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학술적 정체성을 확립하였고, 이에 따라 이이 저술의 정리 및 간행, 이이 행적에 대한 평가 작업 등 학술 전통을 정비하는 작업도 진행되었다.⁷⁾ 이 과정에서 율

2) 노론과 소론의 분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주었지만, 소론계의 학술 연원을 성혼의 학맥에서 찾는 관점에 의하면 두 붕당의 대립은 사상적으로 율곡학과와 성혼학파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소론계 학술 경향의 연원을 우계 성혼의 학맥에서 찾는 대표적 연구로는 황의동, 「宋時烈과 尹拯의 갈등과 학문적 차이」, 『동서철학연구』 40, 2006.

3) 정호훈, 「16-7세기 栗谷學派의 형성과 활동」, 『사학연구』 103, 2011, 78쪽.

4) 황의동, 「율곡학의 선구와 후예」, 예문서원, 1999; 정재훈, 『조선시대의 학파와 사상』; 정호훈, 「16-7세기 栗谷學派의 형성과 활동」.

5) 황의동, 「율곡학파-주기설의 확립과 실천적 경세론」, 『조선 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1996.

6) 鄭萬祚, 「朝鮮中期 儒學의 系譜와 朋黨政治의 展開 (I)」, 『朝鮮時代史學報』 17, 2001.

곡학파는 동일성을 바탕으로 한 학파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⁸⁾ 즉, 16세기의 학적 유산을 바탕으로 17세기 율곡학파가 학파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를 통해 율곡학파의 성립에 관한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바로 율곡학파 형성과 발전의 동력과 관련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기존 연구를 크게 두 가지 경향을 나눌 수 있다. 율곡학파의 결집과 발전 과정에서 학파 내적인 요인을 증시하는 경향과 외부의 정치 국면 변화를 증시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정재훈은 이황을 중심으로 한 영남학파와 이이를 중심으로 한 기호학파의 대결구도에서 진행되었던 학파 연구의 기존 경향을 비판하고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한 학설과 그것을 학문적으로 지지하는 집단의 형성, 즉 학파 출현의 사상적 환경에 주목하였다. 성리학 이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 재편의 전망을 공유하면서 학파가 만들어지고 그 영향력을 확장하여 간 것을 본 것이다.⁹⁾ 栗谷年譜의 편찬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율곡학파 學統의 형성과 정비 과정을 규명한 유새롬의 연구 또한 내부의 정체성, 즉 學統意識의 출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재훈의 연구와 비슷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⁰⁾

정호훈의 경우 율곡학파의 형성에서 이이의 문집과 저술 간행 과정에서 보이는 내정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학파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외적 환경, 즉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른 정치론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율곡학파의 구성원들은 이이의 사상을 계승하는 가운데

7) 유새롬, 「17세기 西人の 學統意識과 栗谷年譜의 편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 학위논문, 2005.

8) 황의동, 「17~18세기 기호학파의 철학사상」, 『한국유학사상대계 III: 철학사상편 下』, 2005, 31쪽.

9) 정재훈, 『조선시대의 학파와 사상』.

10) 유새롬, 「17세기 西人の 學統意識과 栗谷年譜의 편찬」.

그 내부에서 다양한 이념을 발전시켰고, 시기별 정국 변화에 따라 또는 각 학자들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정치이념이 형성되었다. 특히 율곡학파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파 내부의 다양한 이념적 갈래 중에서도 이이 이래 일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하였던 정치이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¹⁾ 이는 학파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정치적 요소, 특히 봉당 간의 갈등에 따른 정치 이념의 변화를 중요시하는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연구 경향 모두 율곡학파 결집의 핵심 이론이 되었던 성리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이이의 성리설이 17세기 율곡학파의 학술전통으로 확립되면서, 이를 둘러싼 학술적 분기가 발생하였다. 학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이의 단계에서 온전히 해명되지 못했던 몇 가지 측면을 둘러싸고 학파 내부에서도 이견이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학파의 분기와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이를 고려하면, 율곡학파 결집의 핵심 요소이자 학술적 분기를 가속화한 핵심 요소인 성리설에 대한 고찰이 없이는, 율곡학파의 형성과 분기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17세기 율곡학파의 성립과 분기 과정을 성리설을 중심으로 한 학술 전통의 확립과 분기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6세기 이른바 사단칠정논쟁을 통해서 그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난 이이의 성리설은 학문적 후예들에게 이론적 과제를 남겼다. 17세기 퇴계학파와의 사상적·정치적 대립 속에서 이이의 성리설은 학파의 정체성 확립의 주요 요소가 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보완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였으며 보완의 방식을 두고 학술적 분기가 이어졌다. 17세기 율곡학파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온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이의 성리설을 계승하고 변용하는 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11) 정호훈, 「16·7세기 栗谷學派의 형성과 활동」.

이 연구에서는 먼저 II장에서 율곡학파의 정체성으로 작용하는 학술 전통이 확립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학술 전통의 근간으로서 이이의 성리설이 가진 사상적·정치적 중요성을 짚어본다. III장에서는 金昌協과 林泳, 趙聖期 등이 理의 주재성을 강화하면서 氣發理乘一途로 대표되는 이이의 사상을 보완하려 하였던 점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율곡학파의 嫡傳이라 평가받는 權尙夏가 氣의 작용을 더욱 철저히 강조하면서 학파의 이론을 다듬었던 점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17세기 율곡학파 내 성리설의 분기 양상을 ‘학술 전통의 계승과 변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여 보고자 한다.

II. 율곡학파 학술 전통의 성립과 이이의 성리설

17세기 율곡학파가 학파의 면모를 공고하게 다질 수 있었던 데에는 이이의 이론을 추종하는 학자들이 대폭 늘어난 것이 우선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시기 김장생에서 송시열로 이어지는 이른바 嫡傳 계보를 중심으로 하여 학문적으로 단일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 율곡학파 형성에 있어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단일한 정체성에서 오는 강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정치적으로도 점차 서인의 주류로 서게 되었다.¹²⁾

이이의 생존 당시부터 그의 제자들이 정치적으로 강한 결속력을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이와의 사승 관계를 중심으로 한 학문 집단은 언제든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다.¹³⁾ 이이는 주변의 성혼,

12) 정호훈, 「16·7세기 栗谷學派의 형성과 활동」.

송익필 등과 함께 교류하면서 하나의 학문 집단을 형성하였다.¹⁴⁾ 김장생과 김집을 거쳐 송시열로 이어지는 학문 계보의 인물들은 율곡학파의 단일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들은 특히 이이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학통을 설정하였다.¹⁵⁾

이이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인적 집단이 형성되었으나, 이 인적 집단이 학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학맥을 중심으로 한 학문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했다. 율곡학파의 계승자들은 이이의 학문과 사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자신들의 학문 전통을 확립하려 하였다.¹⁶⁾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후대의 계승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이이의 저술을 간행하는 사업이었다. 이이의 저술을 정리하여 간행하는 작업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파악된다.¹⁷⁾ 이이 사후 성혼의 주도로 간행 작업이 시작되어 1611년 朴汝龍 등에 의해 10권 분량의 『栗谷集』이 간행되었다. 이 문집은 수록하지 못한 저술이 많았고 체제 또한 일반적인 문집의 구성과는 달랐기 때문에, 이이를 대표하는 문집으로 파악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이 문집을 확대 편찬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으며, 南溪 朴世采의 주도 하에 17세기 후반 『續集』 8권, 『外集』 8권, 『別集』 6권이 간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간행 작업에 율

13) 정재훈, 『조선시대의 학파와 사상』; 정호훈, 「16·7세기 栗谷學派의 형성과 활동」; 최영성, 「구봉 송익필의 학문과 기호학파에서의 위상」, 『우계학보』 23, 2004.

14) 정재훈, 『조선시대의 학파와 사상』.

15) 정만조는 동서 분당 당시 학문적 관계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당시 사승관계로 맺어진 학적 기반이 언제든지 정치 집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하였다. 실제로 이이가 동인 계열로부터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되면서 이이의 학문 집단이 서인 계열로 자정하게 되고, 이후 국가 경영과 정국 운영을 놓고서 각 분당의 정론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학적 기반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鄭萬祚, 「朝鮮中期 儒學의 系譜와 朋黨政治의 展開 (I)」)

16) 정호훈, 「16·7세기 栗谷學派의 형성과 활동」.

17) 유새롬, 「17세기 西人의 學統意識과 栗谷年譜의 편찬」.

곡학파의 계승자들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우암 송시열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송시열은 이 문집들 중 『별집』의 간행과 관련하여서 강한 반대를 표명하였던 것이 주목된다.

『별집』은 이이가 작성했다고 하지만 확정하기에는 애매한 작품, 제자들이 기록한 내용, 그리고 다른 이들의 기록에 나타난 이이 관련 기사를 모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중 이이의 저술이 아닌 것이 분명하거나 이이의 행적을 왜곡하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송시열이 『별집』의 간행과 관련하여 강한 이견을 표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이의 행적에 관한 내용 중 이이가 젊은 시절 불교에 귀의했었다는 기록 등이 문제가 되었다.¹⁸⁾ 이이의 불교 귀의 관련 기록은 성리학자로서 이이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동시에 그의 학문의 정통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는 것이었다. 특히 당시 이이와 성혼을 文廟에 종사하기 위한 서인 계열의 노력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남인이 계속 이이의 행적 문제를 거론하여 비판하였기 때문에, 송시열이 이 기록들을 삭제하도록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는 이이 학술에서의 논쟁적 요소를 제거하고 그로부터 내려오는 학통을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이의 행적을 정리하고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추앙하면서 학문 전통을 확립해 나가는 작업은 年譜의 편찬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 연보 편찬 작업은 당시 서인이 추진하고 있던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 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1665년(현종 6) 송시열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栗谷年譜와 尹宣擧가 중심이 되어 편찬한 牛溪年譜가 『栗谷牛溪二先生年譜』로 합간되었다. 이를 통해 서인 계열은 남인의 비판에 대항하여 두 학자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1682년(숙종 7)

18) 이상 『別集』의 편찬과 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김태년, 「'正典' 만들기 of 한 사례, 『栗谷別集』의 편찬과 그에 대한 비판들」, 『민족문화』 43, 2014를 참고.

에는 송시열과 尹拯의 후원 하에 박세채가 중심이 되어 『栗谷先生年譜』를 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이의 행적에 대한 이해가 완비되고 그를 학파의 연원으로서 추앙하며 학문 전통을 확립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던 것이다. 한편, 문집과 연보의 간행 과정에서 드러난 송시열과 박세채의 의견 차이는 이후 노론과 소론의 분기를 노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¹⁹⁾

이이 저술의 간행 작업을 통해 이이의 사상을 하나의 학문 전통으로 확립시키는 것과 함께, 이이의 위상을 율곡학파의 종주를 넘어서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이 지속되었다. 바로 이이의 문묘종사 운동이었다. 이이를 문묘에 종사하려는 문인들의 노력은 인조반정 직후 柳舜翼의 건의를 시작으로 하여, 숙종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²⁰⁾ 서인 계열이 이이와 성혼의 문묘종사를 추진한 것은 그들의 학파적 연원이 되는 두 인물을 문묘에 배향함으로써 학문적 정통을 인정받고 인조반정을 합리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퇴계학파를 중심으로 한 남인 계열에서는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를 지속적으로 반대하였다. 여기에도 인조, 효종, 현종 등 문묘 종사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국왕들이 신중론을 기반으로 문묘 종사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곡학파를 중심으로 한 서인 계열의 문묘 종사 운동은 결실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퇴계학파에서는 이이와 성혼의 행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이가 불교에 물들었던 점이나, 성혼의 기축옥사나 임진왜란 당시의 행적이 바로 반대론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²¹⁾

효종대 퇴계학파는 이이와 성혼 문묘종사에 대해 반대하면서 두 인물

19) 이상 율곡연보의 편찬과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유새롬, 「17세기 西人の 學統意識과 栗谷年譜의 편찬」을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20) 이하 이이 문묘종사 운동의 전개에 대하여서는 金相五, 「黨爭史의 立場에서 본 李珥의 文廟從祀問題」, 『전북사학』 4, 1980; 유새롬, 「17세기 西人の 學統意識과 栗谷年譜의 편찬」, 6~11쪽을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21) 『仁祖實錄』 권31, 인조 13년 5월 경신; 『仁祖實錄』 권31, 인조 13년 6월 갑신.

의 행적 문제를 넘어서서 학문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기에 이르렀다. 1650년(효종 1) 2월, 경상도 진사 柳稷 등 9백여 인은 상소를 올려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를 반대하면서 두 학자에 대해 학문적 비판을 가하였다. 그들은 이이의 학문에 대해 기만을 위주로 하여 기를 理로 잘못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병통이 바로 陸九淵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비판하였다. 이를 가지고 주희의 정통을 이은 이황의 학설을 공격하였으니 이이의 학문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성혼의 학문에 대해서는 이이와 같은 부류로서 특히 도가의 설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비판하였다.²²⁾

학문적 연원인 이이에 대한 퇴계학파의 비판에 대항하여, 송시열을 비롯한 율곡학파는 이이의 행적과 학문을 옹호하며 문묘 종사를 관철시키려 하였다.²³⁾ 그러한 과정에서 이이로부터 내려오는 이론을 보다 확실한 자신의 전통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문묘종사를 둘러싼 논쟁이 서인과 남인이라는 봉당 간의 대립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서인의 학문 전통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이와 성혼이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문묘 종사를 주도하였던 율곡학파가 서인 계열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파악된다.²⁴⁾

퇴계학파는 계속하여 기의 작용을 중시하는 이이의 성리설이 이단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 비판하였다. 이이 성리설의 특징에 대해서는 그간 主理와 主氣의 구분법에 따라 主氣로 보는 관점,²⁵⁾ 理氣二元論과 理氣一元論의 분류틀에서 理氣一元論으로 보는 관점 등이 있었고,²⁶⁾ 최근에는 이이 이론이 '지각설'에 근거를 둔 것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제기되기도 하

22) 『孝宗實錄』 권3, 효종 1년 2월 을사.

23) 『宋子大全』 권21, 「擬兩賢辨誣疏(辛卯爲太學生等)」.

24) 정호훈, 「16·7세기 栗谷學派의 형성과 활동」, 88쪽.

25) 대표적으로는 다카하시 도오루 지음, 조남호 옮김, 『조선의 유학』, 소나무, 1999.

26) 대표적으로는 이상익, 『畿湖性理學研究』, 한울, 1998.

였다.²⁷⁾ 이이 사상의 핵심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지만, 적어도 이이의 사상이 이황 사상에 대한 반대향으로서 현실에서 氣의 작용을 중시하는 특징을 드러냈다는 점에는 여러 연구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이의 단계에서 완비되지 못했던 이론적 과제들은 퇴계학과 입장에서는 비판의 요소였지만, 율곡학과 입장에서는 계승하고 보완해야 할 학술 전통의 근간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율곡학파는 퇴계학파의 공격에 맞서 자파 학술 전통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강조하였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송시열이었다.

송시열은 이이의 학문이 주자성리학으로부터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정통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이 이론이 理의 역할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퇴계학파의 비판에 맞서 이이 학술에서 채 설명되지 못한 점을 명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송시열은 기본적으로는 氣發理乘一途로 대표되는 이이의 학문 구조를 흐트러트리지 않으면서도 理의 역할을 해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理의 주재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지만, 퇴계학파의 互發說을 비판하면서 理의 주재성을 형이상학적인 차원에 한정하였으며, 현실에서는 여전히 기의 역할을 중시하였다.²⁸⁾ 이러한 송시열의 작업은 율곡학파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퇴계학파의 성과와 논점을 수용하여 학파의 전통을 한 단계 진전시켰다고 평가받기도 하였다.²⁹⁾ 퇴계학파와의 대립이 사회개혁론이 곳곳에서 제시되던 조선 사상계

27) 정원재, 「지각설(知覺說)에 입각한 이이(李珣) 철학의 해석」,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28) 『宋子大全』 권105, 「答沈明仲」, ‘且所謂理之主宰使動使靜者, 亦不過曰自然而已, 不如陰陽五行之運用造作也. 然此陰陽五行之所以能運用造作者, 豈非理乎? 故朱子曰若理無動靜, 氣何自而有動靜乎, 中庸註曰天以陰陽五行, 化生萬物, 所謂天者, 亦理而已矣. 大抵從源頭看則有是理, 然後有是氣. 故謂理爲主宰, 又謂之使動使靜. 從流行處看則理便在氣中, 清濁善惡, 隨氣之所成而已.’

29) 이봉규, 「宋時烈의 性理學說 研究」,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105

의 분위기와 맞물려 사회 운영의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율곡학파의 이론 체계 안에서 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려 한 송시열의 작업이 율곡학파의 경세론에 이념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이 주목되기도 하였다.³⁰⁾ 퇴계학파와의 대립이 율곡학파의 사상적 특징을 분명하게 하면서도,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퇴계학파와의 대립 속에서 율곡학파는 학술 전통을 분명하게 확보하면서 학파로서의 면모를 확연하게 가질 수 있었다. 이이로부터 내려오는 학술 전통의 특징은 송시열에 이르러 더욱 명확해졌으며 그 정치성 또한 확연해졌다. 자신들의 학술 전통을 옹호하고 보완하는 가운데 성리설이 중앙정계에서 학파의 행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였던 것이다. 학술 전통이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석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이로부터 내려오는 학술 전통은 다양한 해석을 가져왔고 또 여러 보완책의 모색을 촉구하였으며, 이는 결국 학술적 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Ⅲ. 김창협 의 理의 주재적 역할 인정

율곡학파의 학술적 분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18세기 湖論과 洛論의 대립, 즉 호락논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호론과 낙론으로 이어지는 학술적 흐름은 이미 17세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

~118쪽.

30) 나중현, 「송시열의 리(理)에 관한 논의와 그 정치적 의미 퇴계학파와의 대립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3, 2019.

다.³¹⁾ 17세기 農巖 金昌協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학자들은 율곡학파의 이론적 과제를 理의 주재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일부 이이의 학설에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고, 그러한 비판은 율곡학파 내에서 논쟁을 야기하였다.

김창협은 논문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金壽恒의 둘째아들이자, 율곡학파의 嫡傳으로 평가되는 송시열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므로, 인적 관계로 보았을 때 율곡학파의 일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³²⁾ 기존 유학사상사서술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김창협을 ‘절충파’로 파악하였는데,³³⁾ 그가 율곡학파의 전통적인 견해와는 다른 학문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 견해이다. 김창협의 학문 경향이 율곡학파의 전통적인 경향과 다르다고 파악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점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의 「四端七情說」이다. 김창협의 생존시에도 그의 사단칠정론은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었고, 문집 간행 때에도 權尙夏의 강한 반대로 인해 정식으로 수록되지 못하였다.³⁴⁾ 김창협이 「사단칠정설」에서 퇴계학파의 理發을 긍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를 율곡학파의 종지에서 어긋난다고 파악한 권상하가 문집 수록에 강한 반대를 표한 것이었다. 또한 「사단칠정설」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볼 수 있는 김창협과 권상하의 학술적 차이는 이후 논문 내의 일대 논쟁인 湖洛論

31) 문석윤, 『湖洛論爭: 형성과 전개』, 동과서, 2006.

32) 김창협의 家系와 사승 관계에 대해서는 이천승, 『농암 김창협의 철학사상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 48~63쪽을 참고.

33) 대표적으로는 다카하시 도오루 지음, 조남호 옮김, 『조선의 유학』; 裴宗鎬, 『韓國儒學史』,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4; 이상익, 「畿湖學派에 있어서 退栗折衷論의 특성」, 『퇴계학보』 99, 1998; 이동희, 「조선후기 ‘折衷派’의 性理學說에 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26, 2001 등.

34) 김용헌, 「농암 김창협의 사단칠정론」, 『四端七情論』, 서광사, 1992, 258쪽; 이천승, 「農巖 金昌協의 「四端七情說」에 대한 연구」, 『東洋哲學研究』 37, 2004, 149~150쪽.

爭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³⁵⁾

사단은 理를 위주로 말한 것인데 기가 그 속에 들어 있고, 칠정은 기를 위주로 말한 것인데 理가 그 속에 들어 있다. 사단의 기가 곧 칠정의 기이고 칠정의 理가 곧 사단의 理이지,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름 지을 때에 뜻이 각각 주로 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주자어류』의 “사단은 理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다.”라는 의미가 이와 같으니, 퇴계의 학설도 이와 비슷하다. 그러나 퇴계의 추론하는 말이 너무 지나치고 분석이 매우 심하여 두 갈래로 나누는 병통이 생기고 말았다.³⁶⁾

김창협은 현실 세계에서 理와 기가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단과 칠정을 정의하였다. 따라서 사단과 칠정은 별도의 감정이 아니다. 다만 명칭을 만들 때에 理를 주로 한 것과 기를 주로 한 것의 차이로 인해 두 개의 개념으로 성립된 것이다.³⁷⁾ 김창협은 율곡학과에서는 잘못된 기록으로 파악하여 왔던 『주자어류』의 문구를 근거로 하여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였다. 또한 이황의 互發說은 사단과 칠정의 발현 방식을 두 갈래로 나누는 병통이 생기기는 하였지만,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라 보았다. 김창협은 이황의 사단칠정론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³⁸⁾

김창협은 이황에게 지나치게 두 갈래로 나눈 병통이 있다는 점은 인정

35) 문석윤, 『湖洛論爭: 형성과 전개』.

36) 『農巖集』續集 권2 「四端七情說」, ‘四端, 主理言而氣在其中, 七情, 主氣言而理在其中. 四端之氣, 卽七情之氣, 七情之理, 卽四端之理, 非有二也. 但其名言之際, 意各有所主耳. 語類四端理之發七情氣之發, 其意似是如此, 退陶說亦近此. 但其推說太過, 剖釋已甚, 遂成二歧之病耳.’

37) 이천승, 「農巖 金昌協의 「四端七情說」에 대한 연구」, 151쪽.

38) 김용현, 「농암 김창협외의 사단칠정론」, 265쪽.

하지만, 이황에 대한 이이의 견해 또한 올바르지는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이가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겸한다.’라고 한 데에 대해서는 칠정 또한 사단을 겸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으며, ‘칠정은 主氣’라는 견해에 대한 이이의 비판에 대해서는 말의 본의를 오해한 것이라 반박하였다. 칠정이 主氣라는 것은 칠정이 理에서 근본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칠정 또한 理에 근본하지만 주로 하여 말한 것이 기에 있을 따름이었다는 것이다.³⁹⁾ ‘사단은 오로지 선하고 칠정은 선악을 겸하며, 사단은 理만을 오로지 말한 것이고 칠정은 기를 겸하여 말한 것’이라는 이이의 견해에 대해서도 ‘칠정은 기를 겸하여 말한 것’이라는 부분에 의문을 표하였다. 이이의 이 견해에 대한 김창협은 비판 요지는 칠정의 선악은 기가 理를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兼氣보다는 主氣로 설명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 것이었다.⁴⁰⁾ 「사단칠정설」 전반에 걸쳐서 김창협은 主理와 主氣의 구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또한 김창협은 기의 淸濁을 위주로 설명하는 이이의 인심도심설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였다.⁴¹⁾

권상하가 「사단칠정설」을 김창협은 문집에 수록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던 이유는 결국 이 글에서 김창협이 이이의 견해를 비판하고 이황의

39) 『農巖集』續集 권2 「四端七情說」, ‘栗谷言四端不能兼七情, 七情則兼四端, 其實七情亦不能兼四端. (중략) 以七情爲主氣, 栗谷非之, 然此非謂七情不本乎理也. 雖本乎理而所主而言者, 則在乎氣耳.’

40) 『農巖集』續集 권2 「四端七情說」, ‘四端善一邊, 七情兼善惡, 四端專言理, 七情兼言氣. 栗谷之說, 非不明白, 愚見不無少異者, 所爭只在兼言氣一句耳. 蓋七情, 雖實兼理氣, 而要以氣爲主. 其善者, 氣之能循理者也, 其不善者, 氣之不循理者也. 其爲兼善惡, 如此而已, 初不害其爲主氣也.’

41) 『農巖集』續集 권2 「四端七情說」, ‘栗谷人心道心說, 善者淸氣之發, 惡者濁氣之發. 曾見趙成卿疑之, 而彼時乍聞未契, 不復深論矣. 後來思之, 栗谷說, 誠少曲折. 蓋氣之淸者, 其發固無不善, 而謂善情皆發於淸氣則不可, 情之惡者, 固發於濁氣, 而謂濁氣之發, 其情皆惡則不可.’

논의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율곡학파의 적 전을 이었다고 하는 송시열이 자신의 저술인 『朱子大全劄疑』를 교정하는데에 김창협과 반드시 상의할 것을 부탁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⁴²⁾ 김창협은 율곡학파의 일원으로 평가받았다. 비록 김창협이 이이의 철학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성리설에서 김창협의 가장 기본적인 견해는 이이의 氣發理乘一途를 따르는 것이었음을 다음의 글에서 알 수 있다.⁴³⁾

理와 기는 본디 혼용하여 틈이 없으니, 理는 형체가 없으므로 기를 통해 드러나며, 기의 운행은 사물에서 볼 수 있습니다.⁴⁴⁾

사람 마음에는 理가 있고 기가 있다. 그것이 外物에 감응할 때 기의 기틀 [氣機]이 발동하는데 理가 거기에 탄다. 칠정이라는 것은 기의 기틀의 발동이 나아가 붙인 이름이다. 사단은 그 도리가 드러난 것만을 가리켰을 뿐 기의 일과는 관계가 없다. 기의 일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사단이 기가 없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할 때에 이 기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이다.⁴⁵⁾

김창협은 사물의 발현에서 기가 발하여서 理가 타는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이이의 기본적인 견해를 따르고 있다. 理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기

42) 최천식, 「김창협 철학 연구: 지각론(知覺論)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36~37쪽.

43) 김창협이 이이의 氣發理乘一途를 따르는 점에 대해서는 김용현, 「농암 김창협의 사단칠정론」, 268~271쪽; 金基柱, 「四端七情論으로 본 畿湖學派의 3期 발전」, 『哲學研究』 87, 2003, 108쪽.

44) 『農巖集』 권14 「答閔彥暉」, ‘蓋理氣, 本渾融無間, 而理無形體, 因氣而著, 氣之運行, 卽物可見.’

45) 『農巖集』續集 권2 「四端七情說」, ‘人心, 有理有氣. 其感於外物也, 氣機發動, 而理則乘焉. 七情者, 就氣機之發動而立名者也. 四端則直指其道理之著見者耳, 不干氣事. 所謂不干氣事者, 非謂四端無氣自動也, 言其說時, 不夾帶此氣耳.’

를 통해서만 드러난다는 것 또한 이이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김창협은 사단에 대해서 기가 없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말할 때에 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단이란 도리의 순선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므로, 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⁴⁶⁾ 氣發理乘一途라는 이이의 명제를 따라 사물의 발현을 설명하면서도, 理가 순수하게 드러난 사단을 설명할 때에는 기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理의 주재성에 대한 인식과 연결되어 있었다.

理가 비록 뜻도 없고 조작도 없다고는 하나 그것은 必然, 能然, 當然, 自然한 것이 陳北溪의 학설과 같으니, 또한 주재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까닭에 사람 마음이 움직일 때 理가 비록 기를 타고 발현되기는 하나, 기 역시 理에게 명령을 듣는다. 지금 만약 정이 선하거나 악한 것을 하나같이 기의 청탁으로만 돌린다면, 理의 實體와 성이 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⁴⁷⁾

김창협은 理가 비록 뜻도 조작도 없으나, 주재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사람의 마음은 氣發理乘에 따라 발현하지만, 理의 주재성에 의해 기는 理의 명령을 듣게 된다. 그런데 만일 이이의 학설처럼 선악을 기의 청탁에 근원한 것으로 파악한다면, 理의 주재성도 알지 못하고 본성의 선함도 알지 못하게 된다. 이이의 철학은 이황의 호발설에 대한 반대

46) 이천승, 「農巖 金昌協의 「四端七情說」에 대한 연구」, 155~156쪽.

47) 『農巖集』續集 권2 「四端七情說」, 「理雖曰無情意無造作, 然其必然能然當然自然, 有如陳北溪之說, 則亦未嘗漫無主宰也. 是以人心之動, 理雖乘載於氣, 而氣亦聽命於理. 今若以善惡之情, 一歸之於氣之清濁, 則恐無以見理之實體而性之爲善也.」

의 성격에서 정립되었기 때문에 理의 무위성을 강조하였지만, 의도와는 달리 理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었다.⁴⁸⁾ 氣發理乘一途를 강조하면서 선악의 근원적 분별을 거부하고 결과에 따른 선악 판별을 주장한 이이의 학설은 理의 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선한 행위의 근거로서의 본성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노출하였던 것이다. 김창협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물의 발현 과정에서 氣發理乘一途의 명제는 인정하지만, 理의 위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관점에서 이이의 학설을 보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는 율곡학파의 학문 전통이 가지고 있었던 이론적 문제점을 수정하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평가된다.⁴⁹⁾ 김창협의 이러한 시도는 송시열이 理의 주재성을 근원에 한정시켜 학문 전통의 구조 속에서 논의하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 시기 滄溪 林泳, 拙修齋 趙聖期 등은 김창협의 동조자로서 율곡 이이의 학설에 대한 비판에까지 이르고 있었다. 임영은 理의 적극적인 역할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토대로 하여 이이의 학설을 비판하였다.⁵⁰⁾ 그는 사단과 칠정을 理發과 氣發로 분류하는 이황의 학설에 찬동하며, 모든 사물을 氣發理乘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기의 작용이 理에 따르는 경우와 理에 어긋나는 경우를 나누어, 전자를 理發, 후자를 氣發로 설정하였다.⁵¹⁾ 이러한 비판은 이이의 氣發理乘一途를

48) 김용헌, 「농암 김창협의 사단칠정론」, 271쪽.

49) 金基柱, 「四端七情論으로 본 畿湖學派의 3期 발전」, 109~110쪽.

50) 임영의 성리설에 대해서는 이상익, 『畿湖性理學研究』, 한울, 1998, 199~204쪽; 오종일, 「창계 임영의 학문과 학술사적 위치」, 『고문연구』12, 1999; 오종일, 「창계 임영의 학문과 성리설」, 『동양철학연구』22, 2000 등을 참고.

51) 『滄溪集』 권25 「日錄」, '但理固不離於日用, 而人不能循理, 甚至於一切悖理者, 又何自而然乎. 此時固不可道理離於氣, 只由於氣之作用而非干理事也, 亦豈可以一切悖理者, 同於一切循理者而渾稱曰氣發理乘而已哉. 是故善心非無氣也, 以其此善由理而發, 故謂之理發, 惡亦非無理也, 以其爲惡, 實由氣之過不及而非由理也, 故謂之氣發. 蓋以其爲善爲惡之所由來者分之, 亦非謂自理生出一箇

부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임영 또한 전반적인 발현 방식에서는 이이의 구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⁵²⁾ 임영의 이이 비판은 이황의 호발설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理의 적극적 역할이 없이 단순히 萬物의 所以然의 總名에 불과하게 만든다는 점에 집중되어 있었다.⁵³⁾ 즉 理의 모호한 역할 설정을 이이 이론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조성기 또한 理의 주재성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율곡학과 이론의 문제점을 수정하려 하였다.⁵⁴⁾ 조성기는 理와 기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강조하여 氣發理乘에 입각한 이기론을 전개하면서도, 理는 실제로 기의 주재가 되어 기를 타고 동정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여 理의 주재성을 인정하였다.⁵⁵⁾ 이러한 구도 속에서 조성기는 사단과 칠정을 理와 기에 분속한 이황의 학설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또한 전체적으로는 기발리승의 방식으로 사물이 발현하지만, 상세하게 살펴보면 理가 기를 타고 움직이는 것이 있고, 기가 理를 타서 움직이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였다.⁵⁶⁾ 이러

心, 自氣又生出一箇心也. 其心之爲心則一而已矣. 但其爲善爲惡之分, 不可不剖析精微也. 如此則謂理氣不相離者得矣, 謂善惡皆氣發理乘者, 恐未爲得也.’

52) 이상익, 『畿湖性理學研究』, 202~203쪽.

53) 『滄溪集』 권25 「日錄」, ‘凡人物之作用, 不揀善惡, 無非此氣之所爲, 而氣又皆本於理, 則宜不可以互發言也. 但如此則所謂理者, 却只是萬物所以然之總名, 其中爲善爲惡, 却無定向, 所謂理者, 若非空虛無主宰之物, 卽是夾雜汨董之物矣. 此非從上聖賢相傳相授純粹至善之理.’

54) 조성기의 성리설에 대해서는 윤진근, 「조성기의 사단칠정론」, 『四端七情論』, 서광사, 1992; 이동희, 「조선후기 ‘折衷派’의 性理學說에 대한 연구」, 98~103쪽 등을 참고.

55) 『拙修齋集』 권11 「退栗兩先生四端七情人道理氣說後辨」, ‘心者, 理氣之合也. 夫天命之在人者謂之性, 性卽理也, 而理不能自用, 必因於氣. 此心之必合理與氣者也. 故理必寓乎氣而立, 而實爲氣之主宰, 乘氣而動靜. 氣本原乎理而有, 而反爲理之殼子, 盛理而流行. 所以理無無氣之理, 氣無無理之氣, 必相須而爲用, 渾合而不相離.’

56) 『拙修齋集』 권11 「退栗兩先生四端七情人道理氣說後辨」, ‘然而就氣發理乘之中, 細分而言之, 則又有理乘氣而動者, 與氣寓理而發者.’

한 관점에 따라 조성기는 이황의 학설이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구도로 일관하는 점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조성기는 理의 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기의 청탁만을 가지고 선악을 설명하여 理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물건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이이의 학설을 비판하는 데에까지도 나아갔다.⁵⁷⁾ 임영과 조성기의 이러한 논의, 그리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김창협에게는 이후 호론 계열의 강한 비판이 가해졌다.

김창협을 비롯한 학자들이 理의 주재성을 강조하였던 것은 이이의 이론 자체를 부정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으며, 율곡학파의 학문 전통을 완전히 거부하고자 한 것도 아니었다. 김창협은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강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시각 논변, 미발 논변 등을 통해 율곡학파의 적전으로 평가되는 권상하-한원진 계열과는 다른 사상을 형성하였다. 특히 이들의 학술적 강조점은 현실 세계에서 수양을 위해 理를 포착하여 실현하는 마음의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기질에 온전히 국한되지 않는 본성을 현실화하는 마음의 작용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理의 주재성을 이이가 설정하였던 것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을 때 생기는 문제를, 다양한 개념들의 재설정을 통해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理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명하여야 한다는 당시 율곡학파의 이론적 과제를 理의 주재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해결하면서, 학문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자신의 문제의식에 따라 변용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김창협 계열에서는 마음의 가능성을 중시하는 학설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율곡학파 내에서 여러 논쟁을 촉발하였고, 이는 이후 호락논쟁에서 낙론의 학설

57) 『拙修齋集』 권11 「退栗兩先生四端七情人道理氣說後辨」, ‘若槩以理無所作爲, 而遂以心之善惡, 只屬乎氣之清濁, 則是理無所與於善惡, 而所謂理者直是一箇籠侗物事, 有亦可無亦可. 烏足爲萬物萬事之樞紐主宰, 而無極之眞, 至虛而至實, 本然之妙, 無適而不然者, 將於何處而可見乎. 栗翁於此, 自欠一段語意, 而其失不待辨說而可知矣.’

로 이어졌다.⁵⁸⁾

IV. 권상하의 氣의 작용 강화

김창협이 중심이 된 낙론 계열에서 理의 주재성을 강조하는 방식을 통해 율곡학파의 이론적 과제를 해결하려 하고 전통을 변용시켰다면, 기의 발현을 강조하는 율곡학파의 기본적인 견해를 더욱 철저히 적용하는 방향에서 자신들의 학문 전통을 강화하려 한 집단도 있었다. 현실 세계에서 부정하기 힘든 기의 작용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는 호론 계열의 철학적 경향이 정립되는 데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 바로 권상하이다.

율곡 선생이 이르시기를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게 하는 것은 理이다.”라고 하셨으니, 이 말을 깊이 음미해 보면 互發의 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변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인심은 행기의 사사로움에서 생긴다.”고 하였을 때, 이 ‘氣’ 자는 耳目口鼻를 가리켜 말한 것이요, “칠정이 기에서 발한다.”고 하였을 때, 이 ‘氣’ 자는 마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니, 글자는 비록 같지만 가리키는 바가 전혀 다르다. 그러나 예로부터 여러 선현들이 때면 “인심과 도심이 이미 이러한 설과 같다면 사단과 칠정은 왜 이러한 설과 같을 수 없는 것인가?”라고 하였으니, 혹 잘 살피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陰陽의 動靜은 바로 이른바 氣發이다. 그러나 濂溪가 이르기를 “태극이 동하여 양을 낳는

58) 김창협의 철학을 둘러싼 율곡학과 내부의 논쟁에 대해서는 조남호, 「조선후기 유학에서 허명지각과 지의 논변」, 『철학사상』 34, 2009; 이선열, 『17세기 조선, 마음의 철학: 송시열 학단의 마음에 관한 탐구』, 글항아리, 2015; 최천식, 「김창협 철학 연구: 지각론(知覺論)을 중심으로」 등을 참고.

다.”고 하였으니, 이른바 태극이라는 것이 어찌 발하게 하는 理가 아니겠는가. 만일 互發의 說과 같다면 태극의 동정과 음양의 동정이 확연하게 두 가지가 되어 버리니, 말이 되는가? 『繫辭傳』에 “한 번 陰하고 한 번 陽하는 것을 道라 한다.”고 하였으니, 염계의 설이 실로 여기에 근본한 것이다.⁵⁹⁾

氣發理乘一途를 긍정하면서도 이이 학설에서 理의 모호한 역할을 문제로 삼았던 김창협과는 달리, 권상하는 氣發理乘一途에 근거하여 이황의 互發說을 분명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주역』 「계사전」과 周敦頤의 『太極圖說』의 문구를 氣發理乘一途說의 근거로 삼으면서 氣發만을 인정하는 이이의 학설이 성리학의 전통을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이와의 논쟁에서 성훈은 인심과 도심의 대립 구도를 근거로 들면서 사단과 칠정도 대립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권상하는 성훈의 이러한 논리 또한 반박하였다. 주희가 인심의 근원으로 지칭한 氣와 칠정의 근원으로 지칭한 氣는 글자가 같을 뿐 가리킨 것이 전혀 다르므로, 인심과 도심의 관계를 가지고 사단과 칠정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권상하는 이이의 명제를 철저히 적용하여 다른 학설을 비판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氣發理乘一途를 철저히 적용하는 권상하의 견해는 인간의 본성까지도 규정하는 기질의 작용을 강조하는 데로 이어졌다.

리로 말하자면 온전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본성으로 말하자면 偏歪이 있으니, 어찌서인가. 하늘이 부여한 理는 모두 같지 않은 적이 없으나 다만 사람과 사물이 각각 품부 받은 것에 절로 다름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중략) 본

59) 『寒水齋集』 권21 「四七互發辨」, ‘栗谷先生曰, 發者氣也, 所以發者理也, 深味此言, 可辨互發之說矣. (중략) 陰陽之動靜, 是所謂氣發也. 然濂溪曰太極動而生陽云云, 所謂太極者, 豈非所以發之理乎. 若如互發之說, 則太極之動靜與陰陽之動靜, 判爲二物, 其可成說乎. 繫辭曰, 一陰一陽之謂道, 濂溪說, 實本於此.’

성의 본체는 애초부터 온전하지 않음이 없으나, 그 편전이 있게 된 까닭은 기의 탓이다. 그러니 기가 온전하면 본성도 온전하고, 기가 치우치면 본성도 치우치는 것을 또한 어찌 의심하겠는가. 그러한 까닭에 율곡의 말씀에 “사람의 본성이 사물의 본성과 다른 것은 기의 국한됨 때문이며, 사람의 理가 곧 사물의 理인 것은 理의 통합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오직 이 한 말씀이 천고에 전하지 않은 오묘함을 발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 道를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⁶⁰⁾

권상하는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서로 같지 않은 이유는 하늘이 부여한 理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람과 사물이 품부 받은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품부 받은 기가 온전하다면 본성 또한 온전하고, 품부 받은 기가 치우쳐 있다면 본성 또한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다. 권상하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이이의 이통기국론을 통해 정당화하며, 자신이 이이로부터 내려오는 학문의 본지를 얻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현실에서 본성의 상태는 본성의 근원이 되는 理가 아니라 그 理를 담아내는 기의 작용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이의 이론을 본성에 대한 이해에 까지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권상하의 철학적 문제의식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원칙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이나 같은 理를 공유하지만 기의 국한됨에 의해 현실적으로 본성은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五常의 전체를 얻어 만물 가운데 가장 빼어나며, 사람 중에서도 성인은 특출한 존재이다.⁶¹⁾

60) 『寒水齋集』 권21 「太極圖說示舍弟季文兼示玄石(己未正月)」, ‘語其理則無不全, 論其性則有偏全, 何者. 天賦之理, 則未嘗不同, 但人物之稟受, 自有異耳. (중략) 性之本體, 初無有不全, 而其所以有偏有全者, 氣之爲也. 氣全則性全, 氣偏則性偏, 又何疑乎. 是以栗翁之言曰, 人之性, 非物之性者, 氣之局也, 人之理, 卽物之理者, 理之通也. 惟此一言, 可謂發千古不傳之妙矣. 嗟乎, 非知道者, 誰能識之.’

61) 『寒水齋集』 권21 「太極圖說示舍弟季文兼示玄石(己未正月)」, ‘唯人也, 稟五行

권상하는 현실적인 기의 작용에 의하여 본성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견해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하였다. 자신의 문하에서 未發과 人物性 등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던 이후인 1718년 그는 「論性說」을 써서 본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⁶²⁾ 이는 제자 韓元震이 1708년 이간과의 논쟁 과정에서 제시한 性三層說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지만, 기질의 작용에 따라 현실적으로 본성에 차이가 생긴다는 자신의 견해를 정교하게 가다듬은 것이기도 하였다. 권상하의 본성에 대한 견해의 핵심은 바로 현실에서의 본성이 기질에 의해 국한된다는 데에 있었다. 모든 사람과 사물이 함께 공유한다고 하는 本然之性은 단지 개념적으로 理만을 지칭하였을 때에나 가능한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本然之性 또한 기질에 국한된다는 것이다.⁶³⁾ 권상하는 본성 뿐 아니라 마음의 한 국면인 未發에 대해서도 기질의 작용을 강조하였다. 본성과 미발 등에 관한 권상하의 견해는 바로 현실 상태를 규정하는 氣의 작용을 강하게 인식하는 그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

권상하는 스승 송시열이 理의 주재성을 근원 차원에서만 인정하려 하였던 점과 유사하게, 현실에서 기의 작용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김창협이 이이 사상을 일부 비판적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권상하는 이이 사상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볼 때 기질의 작용을 강조한 권상하의 방식은 이이의 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하였던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특히 理의 주재성을 강조하였던 퇴계학파의 문제의식을 일부 도입한 김창협 계열에 비교하자면 이이의 사상을 철저하게 적용하려 한 권상하의 특징은 더욱 확연해

之正氣以爲形，則亦得五常之全體以爲性，斯其爲萬物之最秀，而聖人又其秀之秀者也.’

62) 『寒水齋集』 권21 「論性說(戊戌)」

63) 문석윤, 『湖洛論爭: 형성과 전개』, 200~201쪽.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권상하가 기존 학문 전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묵수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권상하 계열에서는 주희에서 이이를 거쳐 내려오는 성리학의 道統을 강조하였지만, 주희로부터 내려오는 성리학 전통을 단순히 절대화한 것만은 아니었다.

전통의 강화가 단순히 '묵수'로 드러나지만은 않는다는 점은 未發에 관한 권상하 문하에서의 논의에서 잘 드러났다. 16세기 이이는 未發의 본성에도 선악이 정해짐이 있을 것이라는 성혼의 주장에 대해서,⁶⁴⁾ 미발의 때에 악의 싹이 있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며 극력 비판하였던 바 있다.⁶⁵⁾ 또한 17세기 율곡학파의 대표적 인물이자 권상하의 스승이었던 송시열 또한 미발이 순수해야만 이발의 상태에서 和를 이루고, 미발이 순수하지 않다면 이발이 和를 이루지 못한다는 제자 박상현의 주장에 대하여,⁶⁶⁾ 성리학의 오랜 전통이자 기본 전제인 性善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⁶⁷⁾ 이이와 송시열은 氣의 작용을 중시하면서도 마음의 본체라 할 수 있는 未發의 영역에 氣의 작용을 상정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였던 것이다.

반대로 이이와 송시열의 嫡傳을 이었다고 자부하였던 권상하는 앞서

64) 『牛溪集』권4, 「第四書 別紙」, 「從人生受形以後而言, 則未發之性, 亦應有善惡之一定者矣, 然未可謂之未發之中也. 愚所謂未發之體者, 指氣稟一定而言也, 非言未發之中也.」

65) 『栗谷全書』권9, 「答成浩原」(제2서) '未發之體, 亦有善惡之可言者, 甚誤. (중략) 若曰拘於氣質, 而不能立其大本則可也. 若曰未發之時, 亦有惡之萌兆則大不可. 蓋其或昏昧, 或散亂者, 不可謂之未發也.」

66) 『寓軒集』권2, 「上尤菴先生(丁巳六月)」, 「中庸曰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 所謂中也, 理氣純粹而寂然不動之謂也, 所謂和也者, 隨其所感而無過不及之謂也. 是故未發者純粹則所發者和, 未發者雜糅則所發者不和矣.」

67) 『宋子大全』권113, 「答朴景初(丁巳六月十八日)」 別紙, 「蓋中者, 狀性之德也. 所謂性者, 雖非舍氣獨立之物, 然聖賢言性者, 每於氣中拈出理一邊而言, 今便以氣並言者, 恐未安.」

살펴본 바와 같이, 氣의 작용을 철저하게 마음의 모든 영역에까지 적용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권상하의 제자 한원진으로 이어졌고, 인간과의 논쟁을 거치며 권상하로부터 문하의 宗旨로 인정받았다. 즉 권상하 문하에서는 이이 사상에서 미처 고려하지 않았던 영역에까지 철저하게 氣의 작용을 관철시키며 이이로부터 내려오는 학술 전통을 더욱 강화시켰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학술 전통의 묵수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통을 변화시켰던 것을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송시열에서 한원진으로 이어지는 학문의 특징을 주자로부터 이어진 師門의 학설을 묵수하였다고 규정한 바 있는데,⁶⁸⁾ 이러한 관점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최근 『朱子言論同異攷』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희의 여러 언설을 비교·분석하였던 한원진의 작업이 주자 학설에 대한 치밀한 연구 끝에 이어진 교조화라기보다는, 주희의 견해에 동조하든 아니든 자신의 견해를 주희의 학설에 의거하거나 주희의 말을 이용하여 전개하는 방식의 학술 풍토를 구축한 것이었음을 논증한 바 있다. 한원진은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희의 각 언설의 내용을 분석한 후, 그가 생각한 주희의 ‘定論’에 비추어 주희의 이전 언설의 ‘잘못’을 밝히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한원진 ‘자신’이 분석하고 체계화한 주자학에 비추어 주희의 다양한 발언의 正否를 구별하는 작업이었다.⁶⁹⁾ 『주자언론동이고』로 이어지는 주자설에 대한 해석 작업은, 주자학의 본령을 그대로 묵수하고 주자학 절대화를 피한 것이라기보다는 주자학의 방대한 영역을 자기 이론의 기반으로 삼은 것이라 하겠다.

68) 대표적으로는 金駿錫, 『朝鮮後期 政治思想史 研究 國家再造論의 擡頭와 展開』, 지식산업사, 2003, 355쪽.

69) 강지은, 「『朱子言論同異攷』를 통해 본 17세기 조선유학사의 새로운 이해」, 『퇴계학보』 135, 2014.

V. 맺음말

17세기 율곡학파는 전대로부터 이어받은 인적·학술적 자산을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학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이 저술과 연보의 간행 작업을 거치며 이이의 학술에서 논쟁적 요소를 제거하고 이이의 사상을 학파의 학술 전통으로 발전시켰으며, 문묘종사 운동을 통해 이이를 조선성리학을 대표하는 정통으로 인정받고자 하였다. 또한 퇴계학파의 사상적 공격에 대응해야 하는 학문적 상황, 봉당간의 대립이라는 정치적 상황, 사회개혁의 준거로서 천리에 대한 탐구가 화제가 되었던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이 단계에서는 명쾌히 해명되지 못하는 못하였던 理의 역할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학문 전통의 이론적 과제를 해결하는 작업이자, 학파의 정치적 입장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길은 율곡학파의 이론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작업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송시열은 학파의 기본 입장을 고수하면서 理의 주재성을 형이상학적 차원에 한정하여 설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학술 전통을 해석하고 이론적 과제를 해결하는 작업이 획일적인 방식으로만 진행될 수는 없었다. 학문 전통의 확립은 그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학술적 분기를 촉발하였다. 老少分岐와 봉당 간의 격한 대립이라는 정치적 변화를 거치면서, 율곡학파 학문 전통의 계승자임을 자부하는 것은 강한 정치성을 띠게 되었다. 학술 전통을 둘러싸고 17세기 율곡학파 내부에서 싹틔던 여러 사유는 점차 두 개의 확연한 학풍으로 발전하였다. 김창협과 권상하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율곡학파의 학문 전통을 계승하였다.

김창협은 理의 주재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이이 이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고, 임영이나 조성기와 같은 학자들과 함께 일부이

기는 하지만 이이 이론의 비판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반면, 권상하는 현실에서 氣의 작용을 중시하는 학파의 입장을 더욱 철저하게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같은 학문 전통에 근거하면서도 서로 다른 방식을 추구한 이들의 특징은 결국 학문적으로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충돌은 권상하가 김창협(1651-1707)의 사단칠정론을 그의 문집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했던 점에서 잘 드러났다. 그리고 이는 이후 호론과 낙론의 일대 논쟁으로 이어져 율곡학파의 학술적 분기를 촉진하였다.

17세기 율곡학파 내 성리설의 변화 과정은 학파의 이론적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에 따라 학문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고 기존 개념들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학문 전통을 대하는 율곡학파 구성원들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들은 학문 전통에 충실하다고 자부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문제의식에 따라 그것을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주희에서 이이로 이어지는 학술 전통의 절대화 경향으로 17세기 율곡학파의 동향을 파악하는 기존 연구의 관점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율곡학파를 넘어서서 17세기 학계의 동향 전반을 다시 한번 조망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2021.03.28. 투고 / 2021.04.11. 심사완료 / 2021.04.19. 게재확정)

[Abstract]

Changes in Yulgok School's Philosophical Theories in the 17th Century

Na, Jonghyun

In the 17th century, Yulgok's successors began to form a school, based on the heritage from the previous generation. They established Yulgok's theory as an academic tradition through the publication of Yulgok's book and sought to be recognized as an orthodox of Neo-confucianism tradition. As the issue of legitimacy of Yulgok's theory had escalated into a political debate in the confrontation with Toegye School, Yulgok School emphasized that this theory was the orthodoxy of Neo-Confucianism from Zhu xi and there was no problematic matters. Song Si-yeol, a representative figure of the Yulgok School in the 17th century, explained the role of li(理) within the theoretical structure of his school to solve the theoretical problems of the school, while supporting his theory of reform by using Heavenly Principle(天理) as an example.

Reinforcement of tradition ironically brought about academic division over interpretation of tradition. Especially, since the theory of Yulgok School clashed with previous Neo-Confucian tradition in many ways, their academic division accelerated over how to solve that theoretical task. Kim Ch'ang-hy p tried to solve this task by fully accepting the leading role of li(理), which was actually a deviation from

the basic idea of Yulgok School. Different from Kim, Kwŏn Sang-ha further elaborated the school's theory by emphasizing the role of qi(氣) and by claiming that Physical Substance affects every condition in real life.

□ Keyword

Yulgok School, Theory of Nature and Principle, Yi I, Song Si-yŏl, Kim Ch'ang-hyŏp, Kwŏn Sang-ha

[참고문헌]

1. 사료

『仁祖實錄』 『孝宗實錄』

權尙夏, 『寒水齋集』(韓國文集叢刊 150~151)

金昌協, 『農巖集』(韓國文集叢刊 161~162)

朴尙玄, 『寓軒集』(韓國文集叢刊 134)

成渾, 『牛溪集』(韓國文集叢刊 43)

宋時烈, 『宋子大全』(韓國文集叢刊 108~116)

李珣, 『栗谷全書』(韓國文集叢刊 44~45)

林泳, 『滄溪集』(韓國文集叢刊 159)

趙聖期, 『拙修齋集』(韓國文集叢刊 147)

2. 연구논저

강지은, 「『朱子言論同異攷』를 통해 본 17세기 조선유학사의 새로운 이해」,
『퇴계학보』 135, 2014.

金基柱, 「四端七情論으로 본畿湖學派의 3期 발전」, 『哲學研究』 87, 2003.

金相五, 「黨爭史의 立場에서 본李珣의 文廟從祀問題」, 『전북사학』 4, 1980.

김용현, 「농암 김창협 의 사단칠정론」, 『四端七情論』, 서광사, 1992.

金駿錫, 『朝鮮後期 政治思想史 研究 國家再造論의 擡頭와 展開-』, 지식
산업사, 2003.

김태년, 「『正典』 만들기의 한 사례, 『栗谷別集』의 편찬과 그에 대한 비판들」,
『민족문화』 43, 2014.

나중현, 「송시열의 리(理)에 관한 논의와 그 정치적 의미 퇴계학과와의 대
립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3, 2019.

문석윤, 『湖洛論爭: 형성과 전개』, 동과서, 2006.

- 裴宗鎬, 『韓國儒學史』,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4.
- 오종일, 「창계 임영의 학문과 학술사적 위치」, 『고문연구』 12, 1999.
- 오종일, 「창계 임영의 학문과 성리설」, 『동양철학연구』 22, 2000.
- 유새롬, 「17세기 西人의 學統意識과 栗谷年譜의 편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윤천근, 「조성기의 사단칠정론」, 『四端七情論』, 서광사, 1992.
- 이동희, 「조선후기 '折衷派'의 性理學說에 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26, 2001.
- 이상익, 『畿湖性理學研究』, 한울, 1998.
- 이상익, 「畿湖學派에 있어서 退栗折衷論의 특성」, 『퇴계학보』 99, 1998.
- 이선열, 『17세기 조선, 마음의 철학: 송시열 학단의 마음에 관한 탐구』, 글항아리, 2015.
- 이천승, 「農巖 金昌協의 「四端七情說」에 대한 연구」, 『東洋哲學研究』 37, 2004.
- 이천승, 『농암 김창협 철학사상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
- 鄭萬祚, 「朝鮮中期 儒學의 系譜와 朋黨政治의 展開 (I)」, 『朝鮮時代史學報』 17, 2001.
- 정원재, 「지각설(知覺說)에 입각한 이이(李珣) 철학의 해석」,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 정재훈, 『조선시대의 학파와 사상』, 신구문화사, 2008.
- 정호훈, 「16·7세기 栗谷學派의 형성과 활동」, 『사학연구』 103, 2011.
- 조남호, 「조선후기 유학에서 허령지각과 지의 논변」, 『철학사상』 34, 2009.
- 조남호, 『이황&이이 조선의 정신을 세우다』, 김영사, 2013.
- 최영성, 「구봉 송익필의 학문과 기호학파에서의 위상」, 『우계학보』 23, 2004.
- 최천식, 「김창협 철학 연구: 지각론(知覺論)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황의동, 「율곡학파·주기설의 확립과 실천적 경세론」, 『조선 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1996.

황의동, 『율곡학의 선구와 후예』, 예문서원, 1999.

황의동, 「17~18세기 기호학파의 철학사상」, 『한국유학사상대계 III: 철학사상편 下』, 2005.

황의동, 「宋時烈과 尹拯의 갈등과 학문적 차이」, 『동서철학연구』 40, 2006.

다카하시 도오루 지음, 조남호 옮김, 『조선의 유학』, 소나무, 1999.

